

用語解説試案 (第4回)

—書誌學 關係 用語—

圖協 專門委 用語分委

가각고(架閣庫)

1. 高麗때 圖書를 간직하든 官衙로 恭愍王 5년에 배움.
2. 李朝때 圖書, 文書를 保管하든 官衙로 太祖 元年에 設置함.

가계(家契)

집문서

가권(家券)→가계(家契)

가첩(家牒)

한 집안의 譜牒

각본(刻本)

刻板한 冊

각자(刻子)

옛 金屬活字의 字母를 이루는 木刻字의 刻木者이다.

간소(諫疏)

간하의 上疏함

갈필(渴筆)

1. 땀땀한 털트 멘 그림 붓
2. 붓에 먹물을 많이 묻히지 않고 글씨를 쓰는 일. 그림에도 이용됨.

결권(結卷)

1. 佛敎經典의 마지막 권
2. 책의 마지막 권

경과(京科)

서울에서 보이는 科擧로 會試 殿試 등을 일컫음

경과(慶科)

1. 나라에 慶事가 있을 때 보이는 科擧

경권(經卷)

1. 佛敎 經文을 적은 두루마리
2. 經典, 經文

경당(經堂)

佛敎 經典을 간직하여 두는 집.

경배(硬背)→밀착배(密着背)

경본통속소설(京本通俗小說)

主로 中國 宋代의 抗州地方에서 유행한 소설이다. 現在 碾玉觀音, 菩薩蠻, 西山一窟鬼 등이 傳한다.

경사자집(經史子集)

中國 書籍中에 經書, 史書, 諸子, 文集의 네가지 部類의 總稱

경시(京試)

三年마다 서울에서 보든 小科의 初試

경연원(經筵院)

經籍과 文翰을 保管하고 侍講과 代撰에 관한 사무를 맡은 官廳. 高宗32(1985)에 經筵廳을 廢하고 배운 것인데 建陽元년에 弘文館으로 改稱하였다.

경와(經瓦)

佛敎 經文을 새기어 땅속에 묻는 기와

경왕(經王)

佛敎 經文中에서 가장 뛰어난 經文이다. 즉 草經, 大般若經을 일컫는다.

경적(經籍)→경서(經書)

경찬(經讚)

佛敎의 經典의 本旨를 높이 찬란한 글

경총(經塚)

佛敎에서 經典을 넣거나 經文을 새기거나 또는 쓴 經筒, 經石, 經瓦 등을 땅속에 묻고 만든 무덤이다. 무덤 위에는 五輪塔을 세우기도 한다.

경판(經板)

經書의 刻板

경판(京板)

서울에서 板刻한 것, 또는 그 刻板.

경학(經學)

孔子를 創始者로 한 儒敎의 正統派의 學問으로 經書의 뜻을 研究함.

경학원(經學院)

成均館의 異稱으로 李朝 高宗 24년에 成均館을 經學院으로 고치고 大擧學 등의 職을 두었다.

계(啓)

臣下가 政務에 關하여 上奏하는 文書이다. 이때 上覽에 供하는 文書를 啓本이라고 하고 啓本에 添付되는 目錄이 啓目이다.

계경(契經)

부처님이 말씀한 법을 集結한 典籍.

계보(系譜)

1. 祖上에부터 내려오는 血統과 집안 歷史를 적은 책.
2. 사람의 血緣을 圖式的으로 나타낸 記錄

계복(啓復)

國王에게 上奏하여 死刑罰人을 다시 審理케 하는 文書

계본(啓本)

- 1. 임금에게 보이는 書類.
- 2. 上奏하는 말월.

계사(啓辭)

論罰에 대한 上奏文書

계하문서(啓下文書)

上啓로서 裁可를 받은 文書

계획초시(計劃初試)

儒生에게 열두번 보이고 연말에 그 점수를 계산하여 小科의 覆試를 보게 하던 시험.

고명(願命)

왕이 崩御할 때 國事に 관하여 大臣에게 遺言하는 命令書

고정지(藥精紙)

함경북도에서 생산되는 귀리(雀麥) 짚으로 만든 황지(黃紙). 北紙, 北黃紙 라고도 함.

공거문(公事文)

疏章의 글

공명첩(空名帖)

나라의 財政이 窮乏할 때 銀, 米, 錢, 粟를 받고 官位를 庶民에게 팔 때 本人의 姓名을 空白으로 남긴채 地方官에게 그것을 記入하여 本人에게 交付權限을 委任했던 옛 辭令書의 한 형태이다.

공명도첩(空名度牒)

度牒이 없는 僧侶에 賣買된 牒들이다 (世祖代)

공원(貢院)

옛날 중국에서 科擧를 보는 시험장

공학도서관(工學圖書館)(Mechanics library)

專門圖書館의 一種으로서 工學關係者를 對象으로한 圖書館이다. 처음 시작된 것은 170餘年前 結成된 The General Society of Machanics an Tradesmen of the City of New York 이다.

과감(科甲)→과제(科第)

과거(科擧)

文武官을 登用할 때에 보는 시험의 總稱으로 高麗 光宗 9 年에 制定하여 李朝 高宗 31年 甲午更張에 까지 繼續하였다.

科의 種類는 文科, 武科, 雜科가 있었음.

과시(科試)→과거(科擧)

과제(科第)→과거(科擧)

관문(關文)

- 1. 上官이 下官에게 또는 上級 官廳이 下級 官廳에 보내는 公文書
- 2. 官廳의 許可書

관상감목활자(觀象監木活字)

觀象監에서 每年 定例적으로 曆書 등을 刊行키 위해 만든 木活字이다. 刊本으로는 大統曆, 大清隆, 17年壬申內用 三書(英祖 38年) 時憲曆(純祖18年) 時憲曆(高宗10年) 曆書(隆熙 4年) 등을 들 수 있다.

관자(關子)→관문(關文)

광문회(光文會)

崔南善이 古典의 保存과 理解를 目的으로 1910年에 設立한 古典刊行機關이다. 刊行本으로는 東國通鑑, 海東釋史, 大東韻府群玉, 經世遺表 등 17種이 있다.

교명(敎命)

王妃, 王世子를 冊封하는 訓諭文書이다.

교서관(校書館)

官板 出版의 中央官署이다. 李朝때 經書印行, 香祝, 印篆 등을 맡은 官衙이다.

太祖 元年에 創設한 校書監을 太宗 元年에 改稱하였다가 正祖 6年에 奎章閣에 붙였다.

교지(敎旨) (告身)

官員 任用의 辭令書이다.

文武官 四品 以上の 告身과 堂上官妻 告身만이 國王文書이고, 奉敎 告身인 文武官 五品 以下の 告身과 三品以下妻 告身은 官文書라고 한다.

교첩(敎牒)

太祖때 五品에서 九品까지의 官員任用을 門下府에서 奉敎 給牒한 辭令書이다.

구경(九經)

- 1. 周禮, 儀禮, 禮記, 左傳, 公羊傳, 穀梁傳, 周易, 詩經, 書經 등 아홉가지의 經書
- 2. 혹은 周易, 詩經, 書經, 禮記 春秋, 孝經, 論語, 孟子, 周禮 등 아홉가지의 經書

구경(九經)

이것은 詩, 書, 易, 禮, 春秋, 孝經, 論語, 孟子, 周禮의 아홉개를 일컫는다.

규합총서(閏閣叢書)

李朝末에 婦女子를 대상으로 한 순 국문으로 된 사전이다.

균자장(均字匠)

옛 時代의 印刷過程者의 하나로 植字할 때 竹木이나 破紙 등 空木으로 빈틈을 단단히 꼭꼭 메워서 印出할 版이 動搖치 않게 하는 者.

기사는말체(紀事本末體)

年代나 人物에 重點을 두지 아니하고 事件에 重點을 두어 그 結果와 關係를 記述하는 歷史 叙述의 한 文體이다.

기영목활자본(箕營木活字本)

正祖때 平壤箕營에서 만든 木活字로 刊本은 正祖 16年 (1792) 當時 平安道觀察使 洪良浩가 刊行한 車天駟의 文集인 五山集 1種 뿐이다.

노인(路引)

- 1. 旅行證明書
- 2. 休暇로 故鄉으로 돌아가는 兵士에게 發給하는 證書
- 3. 負裸商의 行商을 許可하는 證明書

녹권(錄券)

國王이 功臣에게 내리는 文卷이다.

능화판(菱花板)

韓製本 결장에 마음뜻의 모양을 박아내는 板.

대계(臺啓)

司憲府, 司諫院 兩司의 啓辭.

대과급제(大科及第)

文科 及第를 장하게 부르는 말.

도첩(度牒)

法典·禮典·度僧條에 따라 僧이 될 者를 禪宗이나 敎宗에 告하여 試驗보게 하고 本誓에 報하면 啓文하여 丁錢을 收納하고 내어주는 牒旨이다.

묘갈문(墓碣文)

무덤앞에 세우는 둥그스런 작은 돌비에 쓴 글.

묘비문(墓碑文)

무덤앞에 세우는 비석의 글씨

무오자(戊午字)

光海君 10年(1617)에 甲寅字를 三篇한 銅活字로 印出한 것이다.

문권(文券)

땅이나 집 또는 그밖의 權利關係를 表示한 文書

문빙(文憑)

證據가 될 만한 文書

문안(文案)

文書나 文章의 草案

밀계(密啓)

秘密의 上奏文

밀교(密敎)

國王이 生前에 宗親이나 重臣에게 秘密히 부탁한 秘密文書 頒敎문(頒敎文)

國王이 三節日이나 慶事가 있을 때 내리는 글이다.

백패(白牌)·(敎旨).

生員·進士科 入格證書이다. 實는 科學之寶를 安하였다.

보첩(譜牒)

族譜로 만든 책.

복시(覆試)

初試에 及第한 사람이 다시 보는 科學. 會試라고도 함.

봉사(封事)→상소(上疏)

봉서(封書)(傳旨)

國王이 暗行御史를 任命할 때 내리는 密敎이다.

봉장(封章)→상소(上疏)

북지(北紙)→고정지(藁精紙)

북황지(北黃紙)→고정지(藁精紙)

비답(批答)·(下批)

官員의 上疏·呈辭에 대하여 王의 裁可를 表示하는 副文 書이다. 李朝에 있어서는 有答, 鄉懇, 兩懇, 啓下, 有旨, 傳諭의 形式이 있다.

사계(査啓)

監司 기다가 調査한 바를 上奏하는 文書

사역원목활자(司譯院木活字)

司譯院에서 만든 木活字로서 刊本으로는 同文彙考, 同文故略(以上 正祖時 印出) 同文故略續(高宗時 印出) 등을 들 수 있다.

사찰판(寺刹板)

寺刹에서 出版한 책.

사패(賜牌)·(王牌)

王族 또는 功臣에게 奴婢 또는 土田(林野·田畵) 등을 下 賜하는 文書

상서(上書)

朝臣이 東宮에 대하여 올리는 文書이다.

상소(上疏)

國王에게 올리는 上奏 文書.

상책(喪冊)

國王이 昇遐한 上王이나 王妃에게 내리는 冊寶文.

서계(書啓)

奉命官의 奉命書.

서소(書疏)→상소(上疏)

서적원(書籍院)

李朝 太祖에 두었던 官衙로서 書籍을 翻譯, 註釋하여 出版했다.

서적포(書籍舖)

高麗 肅宗에 두었던 書籍出版所이다. 肅宗 6年(1101) 國 宇監안에 書籍舖를 두고 그때까지 秘書省에 있던 板木을 이곳에 옮기고 書籍을 出版하였다.

선마문(宣麻文)·(敎旨)

朝臣에게 几杖, 致仕, 奉朝賀를 宣하는 文書이다.

선사기(宣賜記)→내사기(內賜記)

설화지(雲花紙)

江原道 平康産으로 白紙의 一種이다.

소과(小科)

生員과 進士를 뽑은 科擧.

소본(疏本)

上疏章의 原本이다.

소서(詔書)

天子曰詔라 하여 皇帝의 敎書이다. 高麗의 中期와 大韓帝 國 제의 敎書를 詔書라 하였다.

소장(疏章)→상소(上疏)

소지(所志)

訴訟狀.

소초(疏草)

上疏文의 草稿이다.

소칙(詔勅)→편음(編音)

수계(繹啓)

暗行御史의 上啓.

수장(守藏)

李朝에 校書館에 딸린 雜職의 하나로 옛 金屬活字의 여러 字를 노와 靛에다 넣어 두고 그를 간수한 자.

수진본(袖珍本)

소매 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책.

시험(試券)

大·小 製述科의 試紙이다.

시책(監冊)

昇遐한 國王·妃에 尊號, 廟號를 올리는 玉冊이다.

실록목활자본(實錄木活字本)

宣祖 36年에서 同 39年 사이에 覆刻한 朝鮮 前期의 13代王

朝實錄, 光海君初에 印出된 宣祖實錄, 仁祖初에 印出된 光海君日記 一部, 孝宗 初에 印出된 仁祖實錄 및 顯宗 初에 印出된 孝宗實錄이 이에 該當한다.

십이경(十二經)

孝經, 論語, 兩雅, 易, 詩, 書, 三禮(周禮, 儀禮, 禮記) 三傳(左氏, 公羊, 穀梁)의 열두개를 일컫는다.

여본(麗本)

→高麗版 參照

엽서(蠟書)

李朝時代 國家의 秘密을 要하는 書札로서 皮封에 密蠟을 누여 붙여 지정된 相對者 以外 아무도 마음대로 뜯어볼 수 없게 한 機密文書이다.

영사문(頌敎文)→유지(有旨)

오침안정법(五針眼釘法)

韓裝本 製本時 다섯구멍을 실로 꿰매는 방법.

옥책(玉冊)

王妃를 冊封하는 文書이다.

완문(完文)

相當히 廣範圍하게 發給하는 公文書이다. 이 完文은 民이 官의 立旨를 받는 경우와 官이 一方的으로 내리는 完文이 있다. 個人 또는 結社의 權利와 義務에 關하여 發給되는 證明文書이다.

왕지(王旨)

太祖때 一品에서 四品까지의 官員任用辭令書이다.

운각필서체목활자(芸閣筆書體木活字)

肅宗年代에 使用했던 木活字로서 이것으로 印出된 現存本은 箕雅, 韓文抄, 韋蘇州集, 歐陽文抄, 柳柳州詩集, 陶靖節集抄, 諸葛忠武侯全書 등 그 數가 比較的 많다.

원종목활자(元宗木活字)

肅宗때 仁祖의 父 元宗(1580—1619)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고 不足字는 肅宗이 親寫하여 만든 木活字이다. 이것으로 孟子 諺解를 印出했다.

유경철서(儒經七書)

四書의 大學, 中庸, 論語, 孟子와 三經의 詩傳, 書傳, 周易의 總稱이다.

유고(遺誥, 遺教)

先王의 遺書이다. 現王이 昇遷하면 遺教과 大寶를 王世子에게 傳하고 뒤에 이를 奉讓堂에 奉安한다.

유지(有旨)

國喪이 있을 때 國王이 내리는 敕令으로 頒敎文이라고도 한다. 대개 刑曹나 義禁府, 觀察使들이 等級을 나누어 錄啓하여 差等을 두어 敕令이 내려진다.

유서(諭書)

觀察使·節度使·防禮使 등 封任할 때 내리는 命令書.

윤만(綸縑)→윤음(綸音)

윤음(綸音)

國王이 臣民에게 내리는 訓諭의 文書이다. 綸旨, 綸縑, 詔勅이라고도 한다.

윤지(綸旨)→윤음(綸音)

육필(肉筆)

1. 當事者가 實際로 手書로 쓴 것, 印刷에 回附하기 以前에 의 筆蹟, 手蹟 등
2. 機械的 혹은 化學的 方法으로 印刷된 것의 對稱이다.

인경목활자(印經木活字)

燕山君 2年(1496)에 仁粹, 貞顯 兩大妃가 內帑으로서 만든 國·漢 兩活字이다.

인출장(印出匠)

1. 李朝 때의 校書館에서 책을 박아 내는 工匠
2. 李朝 때의 司臚寺에서 權貨를 박아 내는 工匠

임본(臨本)

그 筆蹟을 그대로 模倣한 것.

자문(咨文)

中國의 禮部에 올리는 文書.

장계(狀啓)

監司나 또는 王命으로 地方에 내려간 官員이 書面으로 報告하는 文書.

장소(章疏)→상소(上疏)

전계(傳啓)

이미 處罰된 者의 姓名과 罪名을 列記하여 兩司에서 上奏하는 文書

전문(箋文)

中國의 皇太后, 皇后, 皇太子에게 賀禮하는 文書

전시(殿試)

李朝때 文科의 覆試에서 선발된 33명 및 武科의 覆試에서 의 28명을 闕內에 모아 王의 親臨下에 보이는 科擧이다. 文武科의 初試·覆試 등을 거친 者의 최종 시험으로 이에서 文科는 甲科 3人, 乙科 7人, 丙科 23人과 武科는 甲科 3人, 乙科 5人, 丙科 20人의 等級을 判定하였다.

전지(傳旨)

國政에 대하여 承政院을 통하여 내리는 國王의 命令書이다.

정사(呈辭·狀)

官員이 辭職, 休職, 休暇 등을 願하여 올리는 願書이다.

조지서(造紙署)

李朝때 종이 뜨는 일을 맡은 官衙이다. 太宗 15년에 베푼 造紙所를 世祖 12년에 고쳐서 이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高宗 19(1882)에 廢하였다.

주장(鑄匠)

옛 鑄活字의 鑄成者로 李朝때 校書館의 鑄字를 붓는 工匠

주제별 사서(主題別 辭書)(Subject dictionary)

特定한 專門領域 혹은 特定主題에 限定해서 編集한 辭書이다. 即 語學이 아닌 各種의 學術, 知識, 技藝, 技術에 대해 詳細히 解說을 한다. 例, 農業大辭典, 音樂辭典 등 [圖協 月報 71. 6 소제 事項辭書 (Cyclopedia, Encyclopedia) 수정한 것].

죽책(竹冊)

世子·世子嬪의 冊封文書

지만(遲晩)

罪人의 自白 및 自白書.

지본(紙本)

紙質인 書畫冊.

직계(直啓)

二品衙門이 屬曹를 거치지 아니하고 上奏하는 啓文.

직부전지(直赴傳旨)

各道の 都試 節目科 及第者는 바로 會試·殿試에 應試할 資格이 있다는 啓下 傳旨 文書이다.

진소(陳疏)→상소(上疏)

진장(陳章)→상소(上疏)

차자(劄子)

國王에게 올리는 簡單한 形式의 上疏文이다.

초계(抄啓)

官員 候補者의 名單을 抄錄하여 注擬(上奏)하는 것.

초기(草記)

京鄕 各衙門에서 政務上 重要한 일을 아뢰는 上奏文

초기목활자본(初期木活字本)

現存 最古의 木活字本은 太祖 4年(1395) 乙亥에 百州知事 徐贊이 木活字를 만들어 印出한 大明律直解라 傳해지고 있다.

초시(初試)

科擧의 맨 처음 시험. 지방과 서울에서 式年의 前年 가을에 보임.

추증(追贈)(敎旨)

高官 또는 高官의 父母, 祖·曹祖考에게 階·職을 死後에 내리는 文書이다.

춘추강자(春秋綱字)

正祖 21年(1797)에 春秋 左氏傳을 刊行키 위해 만든 木刻大字로 活字는 뒷字와 아랫字가 물러 있는 點으로 보아 한 行에 植字되는 大字를 한 木牌에 刻하여 組版한 後 印行한 것 같다.

측리지(側理紙)→배지(苔紙)

태지(胎紙)

1. 주련(柱聯) 병풍 등을 배접할 때 모자라는 증이를 채워서 넣는 종이.
2. 편지 속에 따로 적어 넣는 종이. 협지(夾紙)라고도 함

(15년에서 계속)

舞)되어야 할 것이며, 도서관의 봉사 활동은 잘 계획되고 계속성 있는 대 공중관계의 계획을 통하여 널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곧 공공도서관은 봉사 활동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와 다른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기반(학교, 박물관, 문화원, 농촌지도소 등)과 협조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자료는 모든 주민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자료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도서관 봉사 활동이 가정과 직장에 침투되어야 하며 또한 분관 설치 혹은 이동도서관(자동차 문고 포함)의 방법에 의하여 가정과 직장에 접근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태지(苔紙)

가는 털과 같은 이끼를 섞어서 만든 종이. 側理紙라고도 함

파치먼트(Parchment)

양피지

편년체(編年體)

年수의 順序를 따라서 編次한 歷史 編纂의 한 體裁로 春秋에서 비롯함.

포배장(包背裝)

外形 表紙 등은 蝴蝶裝과 비슷하면서도 料紙의 印刷 또는 書寫面이 밖으로 나오도록 正摺하여 重疊하고 그 料紙 斷面의 가까운 部分을 종이로 끈 노끈 또는 끈으로 맨 후 表紙로 책 上下面과 書背를 洋裝本과 같이 덮어 싣 裝訂이다.

표문(表文)

中國의 皇帝에게 賀禮하는 文書.

합계(合啓)

三司중 兩者 또는 三者의 連名 啓辭.

행서체목활자(行書體木活字)

訓錄都監字本이 거의 그 자취를 간추게 될 시기인 孝宗 中期 때부터 顯宗 初期 때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 活字로 印出된 現存本으로서는 增補萬病回春, 三大家詩全集, 紀勅新書, 體文程選 등 10餘種이 있다.

현종실록자(顯宗實錄字)

實錄廳에서 편성한 顯宗 實錄을 印出하기 위하여 肅宗 3年(1677)에 鑄造한 活字.

협지(夾紙)→배지(胎紙)

홍패(紅牌)(敎旨)

文·武科 甲·乙·丙科의 科擧 入格者에게 주는 證書이다. 寶는 科擧之寶를 安하였다.

회계(回啓)

國王의 下問에 대하여 審議하여 上答하는 文書.

회시(會試)

文武科 科擧 初試의 及第者가 서울에 다시 모여 다시 보는 覆試로서 여기서 及第者가 다시 殿試를 보게 되었음.

(31년에서 계속)

배부의뢰도서목록

<서명>	<부수>	<배부의뢰처>
공군(123호)	68부	공군중앙도서관
교통경찰 통계연보	110부	내무부치안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37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안전(8월)	130부	서울시교통안전협회
월간운수(8월)	63부	교통공공사
월간운수(71년각월호)	1,320부	교통공공사
감사월보(7월)	10부	감사원
결정(제1집)	107부	한국도서, 잡지윤리위원회
속대학보 외 2종	592부	속대도서관
뽕힌글	204부	충남국어교육회
발체집(7권)	127부	서울상대경제연구소